

환경부는 전국 1,654개 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제작을 내년까지 조기 완료 예정

2023년 8월 9일자 KBS <태풍 코앞인데...부실한 ‘도시침수지도’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

□ 보도 내용

- ① 환경부가 도시침수지도를 제작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침수예측이 마무리된 곳은 전국 읍면동 천6백여 곳 중 2백여 곳으로 15%도 되지 않으며, 도시침수지도를 2025년까지 전국 읍면동에 대해 제작할 계획
- ② 작년 ‘힌남노’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포항 인덕동이 환경부 도시침수 지도에 빠져있음

□ 설명 내용

< ①에 대하여 >

- 환경부는 도시침수지도 제작이 필요한 전국 1,654곳의 읍면동에 대해 ‘21년 15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제작한 이후 작년까지 낙동강 권역 등 총 607개 읍면동(36.7%)에 대해 제작 완료하였음
- 또한, 올해 한강권역, 내년에 금강 및 영산·섬진강 권역 등 전국 1,654개 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제작을 2024년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임

< ②에 대하여 >

- 환경부는 작년 ‘힌남노’ 피해 이후 500년 빈도와 과거최대강우 시나리오까지 추가하여 도시침수지도를 보완 제작 중이며, 우선 제작된 포항시(인덕동 등)는 곧 공개 조치 계획

환경부	수자원정책관	책임자	과 장	서해엽 (044-201-7651)
	수자원관리과	담당자	사무관	정진숙 (044-201-7621)

